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6년 02월 0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흡연 피해방지위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제1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소유의 신축 건물에 건축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 지적하고 공개 사과 및 자진 철거 등 조치계획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구 의원은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출입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북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구본승 의원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다른 구와 비교한 결과,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이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구본승의원 5분 자유발언

금연구역 확대 지정해야



제1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현)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소유의 신축 건물에 건축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 지적하고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및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출입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며 5분자유발언을 실시

했다.

구 의원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건축법 위반 행위(무단 증축)에 대해 공개 사과 및 자진 철거 등 조치계획 공개 답변을 요구하고 ‘강북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다른 구와 비교한 결과,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밝혀 달라고 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건축법 위반 무단 증축 논란

구본승 의원, 공개 사과 및 자진 철거 등 조치계획 공개 답변 요구
미아역 2번 출구 앞 이행강제금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건축법을 위반하고 무단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반 사실에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18일에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25일 열린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당 공직자의 공개 답변을 요구하며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구 의원에 따르면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강영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소유의 신축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시설물이라는 것.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어떻게 공직자가 이런 위법을 저지룰 수 있느냐"며

"주민 민원을 1월 초에 접수받았는데 이와 관련, 당사자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진철거를 포함한 사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주민 민원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작년 10월 경 민원이 제기돼 현장 확인 결과 위법 건축물임을 확인했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시정토록 통보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마저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18일에야 납부했다는 것.

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강영조 이사장에게 "(불법인지) 모르고 건축법 위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

인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자진철거를 안하는 이유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회에서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재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 그에 대한 대주민 사과, 그리고 자진철거를 포함한 사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2월 3일 열리는 제 2차 본회의 때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구 의원은 공개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미 주민민원으로 여러 번 제기되었기에 '고위 공직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본회의에서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문제의 건물은 미아역 2번 출구 앞 상가 건물로 건축법을 어겨가며 증축돼 주변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최현규 기자(donstopme@hanmail.net)

강영조 이사장 소유 불법건축물 조치계획 공개 답변요구

구본승 의원
(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 및 자진 철거 등 조치계획 공개 답변 요구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출입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구본승 의원은 첫 번째로,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현)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 소유의 신축 건물에 건축법 위반 시설물이 설치되었는데 어떻게 공직자가 이런 위법을 저지룰 수 있느냐?' 는 주민민원을 1월 초순에 접수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당사자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영조 이사장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진철거를 포함한 사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구 의원은 앞서 말한 주민 민원과 관련



▲ 구본승 의원.

하여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미 작년 10월경에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 확인 결과, 위법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시정토록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지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18일에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모르고 건축법 위반 시설물을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까? 자진철거를 안하

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재임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 그에 대한 대주민 사과, 그리고 자진철거를 포함한 사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2월 3일 열리는 제 2차 본회의 때, 공개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 의원은 공개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주민민원으로 여러 번 제기되었기에 '고위 공직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점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강북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다른 구와 비교한 결과,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서면답변을 요구했다.